2021. 4. 26. (월) 언론보도

인천일보

2021년 04월 26일 (월)
14면 문화

DMZ 평화·생명·공존의 가치 만난다

DMZ 평화예술제, 내달 20일 개최

남북 봄날과 다시 평화로운 일상 기원
21·22일 포럼, 국제적 담론 형성의 장
22일 임진각 콘서트서 '평화'를 노래
미술 체험 프로젝트·달리기 행사도

지난해 LIVE in DMZ 공연에 참여한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제공=경기아트센터

평화와 생명, 공존을 가져오다. DMZ의 가치를 전 세계로!

'2021 Let's DMZ 평화예술제'가 다음 달 20일부터 파주·고양 등 DMZ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한 이번 렛츠 디엠지(Let's DMZ) 평화예술제에서는 포럼, 콘서트, 전시·체험, 스포츠 등 풍성한 프로그램을 통해 DMZ가 지닌 평화의 의미와 생태적 가치를 국내외 대중과 교감하는 종합 학술·문화예술의 장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앞서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22일 오전 9시30분 경기도청에서 임동원 조직위원장, 김명곤 집행위원장, 김의성 홍보대사와 함께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2021 Let's DMZ 평화예술제'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축제에서는 '다시, 평화'를 주제로 대화가 중단된 남북관계에 다시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코로나19로 위축된 우리의 일상이 다시 평화로워지기를 소망하는 중의적 의미가 담겼다.

올해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연구원·킨텍스·경기문화재단·경기아트센터·경기관광공사가 공동 주관하며, 통일부가 후원한다.

20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디엠지 포럼 ▲디엠지 콘서트 ▲디엠지 아트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어 하반기에는 답답한 일상에 숨통을 트여줄 스포츠 행사 '디엠지 런(DMZ RUN)'을 비롯해 31개 시·군 곳곳에서 펼쳐질 '찾아가는 렛츠 디엠지'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질 전망이다.

먼저 5월21~22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릴 '디엠지 포럼(DMZ Forum)'은 한반도 평화협력과 DMZ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국제적 담론 형성의 장으로,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 국내외 석학, 전문가, 평화단체 등 약 100여 명의 패널이 참여한다.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를 주제로 개회식, 기조연설과 함께 특별세션 3개, 기획세션 5개, 평화운동 협력세션 12개 등 총 20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 포럼은 학술적 의사소통을 넘어 민간 참여가 중심인 평화운동의 메카로 발전시킬 예정으로, 이를 위해 민간 참여 세션인 '평화운동 협력 세션'이 대폭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이어 5월22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개최 예정인 '디엠지 콘서트'는 국적과 분야를 가리지 않는 다채로운 음악을 통해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공연 프로그램으로, 식전행사-오프닝-본 공연(1~3부)-엔딩으로 구성된다.

이번 공연 1부에서는 '지금, 여기, 우리'를 주제로 전통음악 기반 예술가와 '디엠지 평화 오케스트라(DMZ Peace Orchestra)'의 협연을 보여주고, 2부에서는 '함께 마음을 모아'라는 주제로 가요, 아이돌뮤직, 클래식 등 다채로운 장르의 공연을 펼칠 전망이다. 끝으로 3부에서는 '다시 평화를 노래하자'는 주제로 음악을 통해 '다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동시에 '디엠지 아트프로젝트(DMZ Art Project)'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다음 달 20일부터 6월15일까지 1개월간 열릴 예정으로, '지붕 없는 열린 미술관'을 콘셉트로 공원 일대를 입체적 예술 체험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 밖에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온·오프라인 이벤트로 예술가와 관객이 하나 되는 참여 예술의 장을 마련할 방침이다. 디엠지 아트프로젝트의 개·폐막 행사에는 안은미 컴퍼니,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 등 유명 무용단도 참여한다.

한편, 하반기를 장식할 '디엠지 런(DMZ RUN)'은 DMZ 일원을 뛰거나 걸으며, 평화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스포츠 행사다.

9월4일부터 26일까지 경기-강원 DMZ 일원을 걸어보는 'DMZ 155마일 걷기', 9월25일에는 경기 연천부터 강원 철원까지 자전거를 통해 DMZ를 만끽하는 '뚜르 디 디엠지(Tour de DMZ) 자전거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또 10월에는 파주 임진각 일대에서 평화통일마라톤대회가 개최된다.

도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온라인 비대면 방식 도입 등 철저한 방역관리 시스템을 최우선으로 해 이번 렛츠 디엠지 평화예술제를 안전하게 준비할 예정이다. 단, 방역 상황에 따라 행사가 축소 또는 연기·취소될 수 있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2021 Let's DMZ 평화예술제'는 남북관계 경색과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평화의 길에 대한 도민의 열망을 확인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DMZ를 전쟁을 넘어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 세계 시민들과 그 가치를 교감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원·김도희 기자 hama@incheonilbo.com

기호일보
2021년 04월 26일 (월)
01A면 종합

남북 경색 이후 '통합CIQ' 설치 한 걸음도 못 뗐다

<가칭 남북국제평화역>

道 '북부를 평화경제 중심지로'
남북철도 관련사업 3년째 난항
최근 DMZ내 역사 신설도 퇴짜
"北과 진전되면 적기 추진 기대"

남북 경색이 고착화되면서 경기도가 남북 철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가칭)남북국제평화역(통합CIQ) 설치사업이 3년째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도는 남북 교류 활성화에 맞춰 남북국제평화역 설치를 통해 경기북부를 평화경제의 중심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북미회담 결렬 이후 진전을 보이지 않는 남북관계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25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통일부와의 회의에서 남북국제평화역(통합CIQ) 설치사업 재추진 승인을 요청했다. 도가 통일부에 해당 사업 추진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무려 5번째이다.

도는 2019년 2월 통일부에 '남북국제평화역 설치 방안'이라는 내용이 담긴 제안서를 공문으로 보내 정식 사업 승인을 제안했다.

제안서에는 현재 경의선 철도를 이용해 북측으로 이동할 경우 남측 도라산역과 북측 판문역에서 2차례 출입국 심사를 진행하는데, 이 시스템이 향후 남북 민간 교류가 활성화되면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해 DMZ 내 역을 설치해 출입국심사를 1회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통일부는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승인을 보류했다.

도는 2019년 2월 처음 제안한 이후 같은 해 7월, 지난해 4·6·9월, 올해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통일부에 사업 재추진을 건의하고 있지만 번번이 퇴짜를 맞고 있다. 이로 인해 도가 당초 계획했던 남북국제평화역 주변을 DMZ 관광상품과 연계하고 남북 분단과 대치를 상징하는 DMZ를 '평화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도 관계자는 "통일부에서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사업 내용을 개선하거나 다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은 없다"며 "다만,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시점에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남북출입사무소(CIQ)는 경의선 도라산역과 동해선 제진역 2곳에 조성돼 있다. 경의선은 철도남북출입사무소와 도로남북출입사무소가 있으며, 개성공단 중단 전까지 개성공단 가동과 개성관광으로 도로출입사무소가 운영됐었다. 동해선도 철도남북출입사무소와 도로남북출입사무소가 있으며, 금강산 관광 중단 이전까지 도로 중심으로 운영되다 현재 중단된 상태다.

김영호 기자 kyh@

경기일보
2021년 04월 26일 (월)
10면 수도권

파주 임진각서 개성사진전 지난 23일 오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열린 '개성사진전 개막식 및 4.27 판문점 선언기념 평화토크쇼'에서 최영준 통일부차관, 이재강 도 평화부지사, 최종환 파주시장, 이종걸 민화협 상임의장, 대한불교천태종 종의회장 무원스님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